# 가장 보고 싶은 것

## (막10:46-52)

46.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47.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1.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가장 보고 싶은 것>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KBS TV에서 방영되었던 예능프로그램 중에서 2005년도에 종영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도전 지구탐험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아마 4월달 장애인의 날을 지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인 배려를 일깨우기 위한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민경이라고 이름 하는 시각장애인 청소년 여자아이를 데리고 뉴질랜드를 갔어요.
그리고 남자탤런트와 함께 뉴질랜드에서 각종 스포츠에 도전하게 합니다.

거기서 뉴질랜드의 시각장애인도 함께 동참해서 수상스키를 탄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는 중에 마지막에 등산을 하게 됩니다, 민경이와 이 탤런트가.
눈이 멀쩡한 사람도 힘이 드는데, 더군다나 그 산이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산이에요.

그 산을 등산하게 되고, 마지막 정상에 올라가서 촬영을 하는데, 민경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성취감 때문에 감동을 해서 그랬겠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높은 산을 등반하는데, 보이지를 않으니까 돌부리에도 걸리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고통 끝에 정상에 오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함께 간 남자탤런트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본 것은 아니고, 그 장면이 하도 감동이 되니까 블로그에 글을 올려놓았더라고요.
대화의 내용이 뭐냐 하면,
'민경아, 오빠가 민경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참 많아!'
그렇겠지요, 뉴질랜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이 자상의 낙원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곳 아닙니까?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민경이 너는 뭐가 제일 보고 싶어?'

한참 정적이 흐른 뒤에 시각장애인 민경이가 입을 열고 얘기를 합니다.
'오빠, 오빠는 내가 바다나 산이나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풍경 같은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아니야, 내가 제일 보고 싶은 것은 나 자신의 모습이야!'
'내가 제일 보고 싶은 것은 나 자신이야!'
뉴질랜드의 초원도 아니고, 이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아니고 나 자신이 제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 참, 글을 읽는데 가슴이 찡해 와요.
실감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제일 보고 싶은 게 뭐예요?
본문에 보면 이 바디매오는 맹인이고 거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바디매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게 된 이 바디매오의 믿음,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내용의 믿음일까?
우연히 이 본문을 가지고 어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훈화하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의 훈화는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이처럼 여러분도 믿음과 신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나가면 반드시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 바디매오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는데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눈뜨고 싶어 하는 자기의 소원을 아뢰어서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다, 이게 믿음일까요?
시각장애인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인지상정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장선생님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참 불필요한 질문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맹인 거지가 소리치며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눈뜨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왜 물어보시는 걸까요?
그리고 바디매오도 대답을 합니다, '예, 보기를 원합니다.'
꼭 무슨 바보들의 대화 같아요.

맹인이 막 소리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뛰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꾸짖는데도 굴하지 않고 막 소리치고 예수님께서 불러오라고 하셔서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불러오셨으면,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소리 지르며 소원이었던 네 시력이 회복될 것이다' 하면 될 텐데,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불필요한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보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이었을까?
예수님은 왜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맹인이요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인이라는 이 말은 무슨 암 같은 게 걸려서 그 암이 진행되어서 3개월밖에 못 사는데 이제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이런 진행형이 아닙니다.
맹인이라는 말은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바디매오의 마음은 자기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는 그 다음 삶의 단계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시각장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러면 거지라고 하는 생업을 위한 방편을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거지라고 하는 것은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바디매오에게는 직업입니다, 생업입니다, 생업.
생존을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바디매오가 내가 앞을 못 본다는 사실을 숙명처럼 받아들였고 그 사실을 매듭짓고 다음 단계로, '그러면 내가 맹인으로서 이 세상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거지로 생업의 방편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은 바디매오의 당시 상황의 분위기를 따져볼 때 얼마든지 '눈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 소원이 아닐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장애를 죽을 때까지 호시탐탐 기회를 보면서 '이것이 나을 수만 있으면, 이것이 나을 수만 있으면…' 이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장애는 이미 종결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삶을 적응해나갈 것인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갑니다.
다 장애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장애인 현실에서 맞는 삶의 방도를 강구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 것은 이게 소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나 모든 걸 다 고려할 때에.
그런데 바디매오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채택되었다는 거예요.
민경이에게 한 이 탤런트의 질문이 이 장면에서 바로 유효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다는 것은 무얼 뜻하는 것일까요?
'민경아, 너는 무엇이 제일 보고 싶으냐?'
'사람들은 생각해요, 오빠도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자연 바다, 산, 아름다운 뉴질랜드의 풍경, 그렇지만 나는 나 자신이 가장 보고 싶어요.'

바디매오가 맹인으로서 거지라는 직업을 가지고 나름대로 살고 있었던 자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온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이렇게 살던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소리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아름다운 것, 나를 낳아준 부모, 내 형제자매, 부귀영화, 다 못 봐도 좋아요, 이미 포기해버렸습니다.
숙명이고 운명처럼 받아들였고 거지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냥 인정하고 살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 세상에 좋다는 모든 것 다 못 봐도 괜찮은데, 참고 받아들이고 살겠는데 예수님을 못 보고는 못 견디겠다는 얘깁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시력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력에 대한 회복의 소원은 이미 숙명적으로 맹인인 상태를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던 자가 바로 그 마을로 예수가 지나간다고 할 때,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불쌍합니까?
부귀영화를 못 봐서 불쌍한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부모형제를 못 봐서 불쌍한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못 봐서 불쌍한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진짜로 내가 불쌍한 이유는 예수님 당신을 못 보는 것임을 알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을 보게 해주세요!’라는 소원이 있었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이 아무리 꾸짖고 나무래도 굴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을 부르면서 외치고 나와서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보면,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쫓아다녔다’고 했어요.
이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믿음이라고 한 것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와 허다한 무리들은.
제자들이 바로 앞에서 누가 으뜸이냐를 놓고 경쟁을 하고 싸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마음으로 보는 것은 높은 자리에요, 으뜸이 되는 경쟁에서 앞서가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택한 겁니다.
마치 바디매오가 앞 못 보는 현실에서 자기가 살기 위하여 삶의 방도를 거지라는 것으로 생업을 채택한 것처럼 그들이 마음으로 보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진짜 그들이 보고 싶었던 것,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것은 제자들조차도 갈릴리에서 어부노릇하고 있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로 올라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디매오는 맹인이었습니다, 시력으로는 예수님을 못 보았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미 소경으로 거지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처럼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으뜸 되는 경쟁에서 앞서가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으로 보고 눈뜨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 자가 바디매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으로 내가 돈을 생각하고 있다면 돈을 보는 거죠.

마음으로 내 자식을 생각하고 내 애인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바디매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마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를 보고 있고, 시력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뿐인데, 바디매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고 마음으로 보고 있던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으뜸을 향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구세계, 여기에서는 이미 포기해 버렸습니다.
보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름만의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시대의 전성기를 또 다른 의미에서 새롭게 실현시킬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매오의 소원은 내가 맹인으로 거지로 살고 있는 이 구세계에서 시력을 회복해서 으뜸경쟁에 조금 뒤늦었지만 뛰어들어서 다시금 재가동해서 빨리 따라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른 이유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 펼치실 예수의 세상, 메시아의 세상, 그 신세계를 꼭 보고 싶다는 소원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시력회복이 아니라 그가 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고 그가 보고 싶었던 것은 예수그리스도요,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 으뜸경쟁에 휘말려들어 있는 구세계에서 높은 자리를 향하여 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지금 내가 마음으로 사업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마음을 주는 것, 마음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업을 보고 있으면 사업을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잘되어야 내 삶이 편안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방편으로 끄집어들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디매오는 그냥 맹인으로 거지의 신분을 받아들이고 살던 자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숙명처럼 포기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았고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현실까지 다 받아들였지만 그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마음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서는 도저히 자기의 불쌍한 처지를 눈감아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뛰쳐나갔고 그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눈으로 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인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무엇이 가장 보고 싶으십니까?
누가 가장 보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으뜸경쟁에서 높아진 상태, 안정된 생활, 이 구세계에서의 높은 지점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보시고 그분이 가져오신 신세계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바디매오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싶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